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4. 3. 18.
No. 957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심교언
www.krihs.re.kr

안소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주요 내용

-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로컬리즘은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
- 로컬리즘 사례연구 결과, 성공적인 로컬리즘은 다양한 주체가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의 과정을 통해 구현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건축·환경자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과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예시: 양양군의 경우 행정지원을 통해 양양 서피비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군부대 협의 등 추진)
 - 특정 장소에서 시작된 사업들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장되어 다른 업종과 연계되고, 주체 간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로컬자본과 브랜드는 생활인구 유입·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예시: 양양군 내 (2013년)서핑숍 3개 → (2022년)서핑 관련 업체 87개로 급증, 공주시에서 활동하는 특정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 내 소비 중에서 21.1%가 로컬크리에이터 간 거래에 해당하는 등 협업 확산)
- 로컬비즈니스나 지역재투자, 지역자원 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취약
 - 사업적 역량을 기르기보다 보조금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 로컬비즈니스 영역 및 지역 내 순환체계 부재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한계로 작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발전과 지역다움 창출을 추구하는 로컬리즘이 균형발전의 보완적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필요

정책방안

- ①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중간비즈니스 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 로컬비즈니스 영역 구축 및 제도화, 소상공인 중 지역가치 창업가 구분체계 도입 등
- ②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로컬금융생태계 조성
 - 지역가치 기반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로컬금융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가치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 ③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 ④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치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 ⑤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01. 로컬의 의미 확장과 균형발전수단으로의 로컬리즘

‘로컬’의 사회적 의미 확장

로컬의 의미 확장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현상

-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로컬’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지역’, ‘지방’, ‘글로벌’, ‘향토’ 등을 사용해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로컬’이라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
- 이후 정책사업으로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브랜드, 로컬인프라, 로컬콘텐츠타운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여기서 쓰인 ‘로컬’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도 없는 상황
- ‘로컬’이라는 단어는 로컬 지향, 지역자원의 가치 재발견, 로컬 관련 정책사업의 증가 등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기존의 ‘지역’, ‘지방’ 등의 용어나 체제, 관행, 정책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
-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수용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로컬의 의미는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장

로컬리즘의 개념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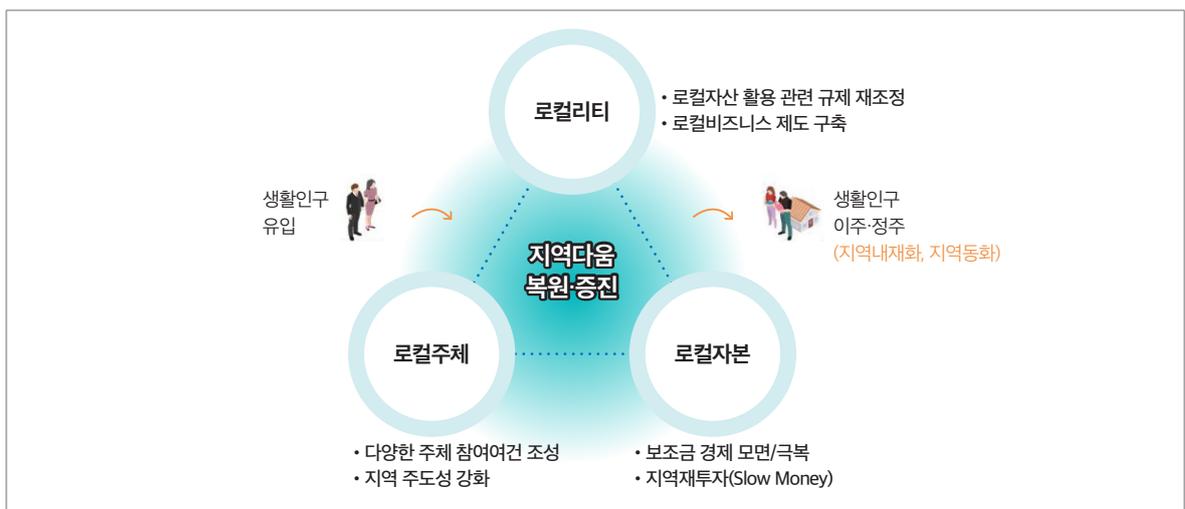
로컬리즘(localism)은 지역을 의미하는 ‘local’과 접미사 ‘-ism’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지역을 중요시하는 주의나 이념을 뜻하며,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향성을 지닌 개념

- 영국은 ‘로컬리즘법’을 통해 지역 단위의 ‘분권’에 초점을 두고 지방정부로의 권력이양을 강조
- 일본은 ‘마을·사람·일 창생법’으로 지방소멸 위기에서 지방의 ‘지속가능성’에 초점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시대 9대 정책 중에서 문화도시와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정책사업의 명칭으로 활용 중

(개념적 특성) 로컬리즘은 장소성에 기반하여 로컬 주체 간 최소한으로 합의된 틀에서 참여와 협치로 지역자본을 축적하며, 자립적이고 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흐름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다움을 창출

- 로컬리즘은 ① 장소기반, ② 지역자산의 활용, ③ 내부주체의 참여와 협치, ④ 지역자본 축적 등을 통한 자생·순환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장소, 로컬주체, 로컬리티, 로컬가치로 구성

그림 1 로컬리즘 구현의 핵심 요소



실천적 균형발전 정책수단으로서 로컬리즘의 적합성

중앙주도형 균형발전 지원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으로의 전환

- 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를 강조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이 정책적 흐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분권과 균형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지방시대'를 추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역의 주도성과 국가의 지원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주체이자 객체를 지역으로 일원화
- 로컬리즘은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 또는 기제
 - 로컬리즘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기업과 지역민 주도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적인 활동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와 별개로 논의되기 어려운 측면

고성장시대의 권역 단위에서 저성장시대의 생활 단위와 장소 중심 균형발전으로 전환

- 고성장시대의 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역(주로 시도 단위)에 배분할 것인지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의 지역정책은 장소와 사람을 기반으로 해야 할 필요
 - 저성장시대의 지역정책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상황에 맞게 부문별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조합(policy mix)하는 정책적 역량이 중요
 -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순환경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로컬리즘이라고 본다면, 로컬리즘은 시도,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마을 단위 등 (소)생활권 단위의 정책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02.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활성화 사례

사례연구의 개요

로컬리즘 관점에서 중요한 주체성과 연계·확산성(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군 서피비치, 공주시 제민천,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

- 선정된 사례의 주요 주체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인근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3년 9월 26일~10월 13일)를 진행한 자료를 통해 사례지역별 로컬리즘 기반 지역활성화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과제 도출¹⁾

(양양군 서피비치) 로컬스타트업과 지방정부의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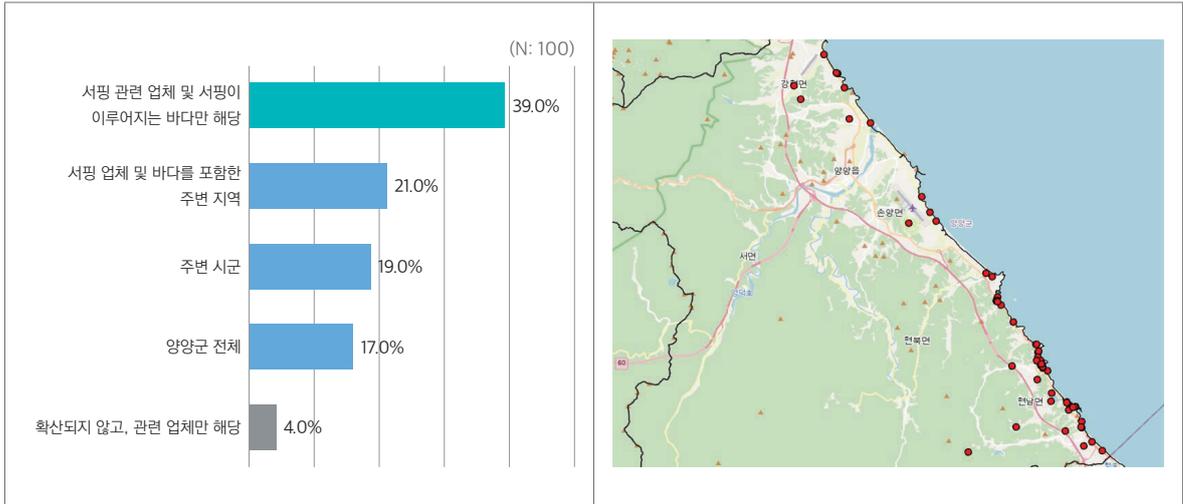
외지에서 온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양양군의 파격적인 행정지원과 지역자산(환경)의 활용

- (장소) 하조대 해안 1km에서 시작 → 양양군 해변 전체를 4계절 해양레저공간으로 확장
- (로컬주체) 외지에서 유입된 청년과 그 가능성을 알아본 양양군의 정책적 지원 → 민간기업, 협회, 지역민과 연계·확장
- (로컬리티) 서핑에 유리한 자연환경과 인적 자산의 결합 → 이미지 자산 형성
- (로컬가치) 지역재투자 활성화, 로컬브랜드 형성

(시사점) ① 인허가 권한, 지정권자, 정부 협의 등 지역자원(특히 환경자원)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명료화(로컬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등), ③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교육 지원 필요

1) 본고의 <그림 2>, <그림 3>, <그림 4>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그림 2 양양군 서피치의 영향력 확산범위에 대한 지역주민·지역상인의 인식(좌), 서핑 관련 업체 분포 현황(우)



자료: (좌) 설문조사(2023년 9월 26일~10월 13일)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우) KoDATA(2023년 5월 4일 검색)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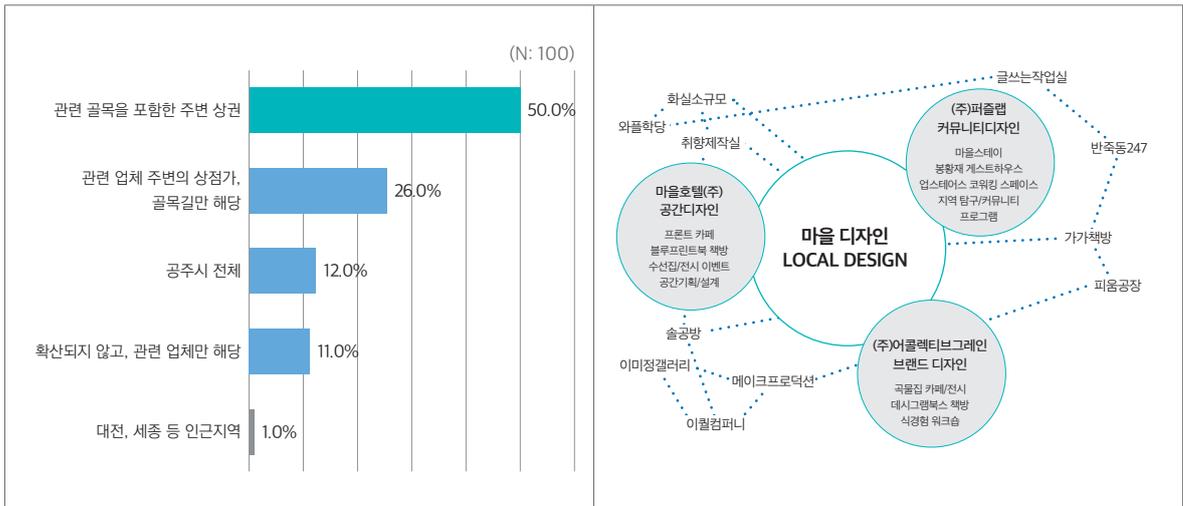
(공주시 제민천) 로컬 관련 정책사업의 집중지역

마을 내 다양한 자원(책방, 카페, 식당, 숙박 등)을 결합하는 콘셉트로 지역의 다양성 증가

- (장소) 중학동, 봉황동, 반죽동 등 제민천 원도심 일원 → 공주, 대전, 세종으로 확장
- (로컬주체) 중앙정부 지원과 로컬크리에이터 → 로컬크리에이터 간 연대, 향토기업 및 지방정부와 협업
- (로컬리티) 제민천과 한옥, 구옥이 조화를 이루는 골목길 등 공간자산 → 느슨한 연대 기반의 인적 자산과 결합
- (로컬가치) 로컬크리에이터 등 인적 자산 증가, 지역 내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종의 등장과 이를 소비(경험)하기 위한 방문형 생활인구의 유입, 로컬브랜드 형성

(시사업) ① 지역자원(특히 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내부 주체성 향상을 위한 후속인재 발굴과 육성, ③ 정부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하여 수익을 '0'으로 만드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보조금 경제를 벗어나, 공공성과 영리성을 아우르는 모델 마련 필요

그림 3 공주 로컬크리에이터의 영향력 확산범위에 대한 지역주민·지역상인의 인식(좌), 로컬크리에이터 간 연결(우)



자료: (좌) 설문조사(2023년 9월 26일~10월 13일)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우) 행정안전부, 한국리노베링 202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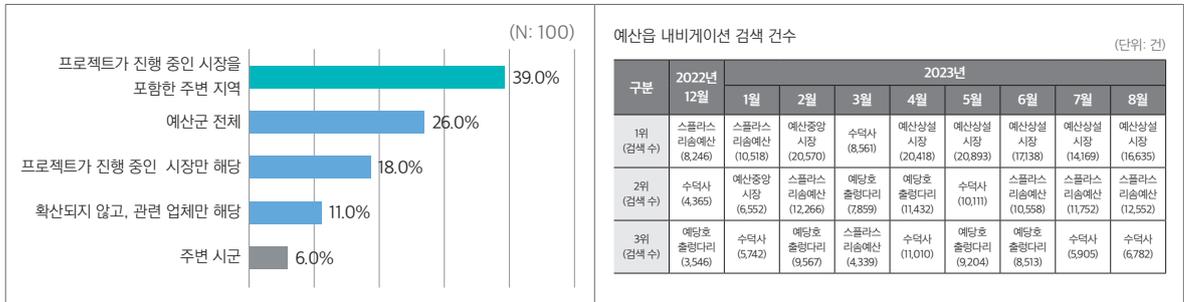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민간 중견기업과 지방정부의 협업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외식창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업과의 협업

- (장소) 프로젝트의 거점인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예산상설시장 → 예산군 내 전통시장으로 확장
- (로컬주체) 더본코리아(컨트론타워)-예산군(행정지원)-시장상인회(인적지원)의 삼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로컬리티) 옛 정취가 남아있는 전통시장과 외부 인적 자산의 결합, 그리고 이를 수용하며 기획에 참여한 상인회와 지방정부의 집단경험지식
- (로컬가치) 상권이 활성화되며 신규 점포 생성, 예산시장으로 창업교육생 인큐베이팅,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시사점) ① 지역 주도 기획과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공공목적의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과도한 역할 부여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경험(노하우)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재투자(로컬금융) 기획 필요, ③ 공공과 민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 사업 발굴 및 기획,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대학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필요

그림 4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의 영향력 확산범위에 대한 지역주민·지역상인의 인식(좌), 예산을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우)



자료: (좌) 설문조사(2023년 9월 26일~10월 13일)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우) 한국관광데이터랩(2023년 10월 4일 검색).

03.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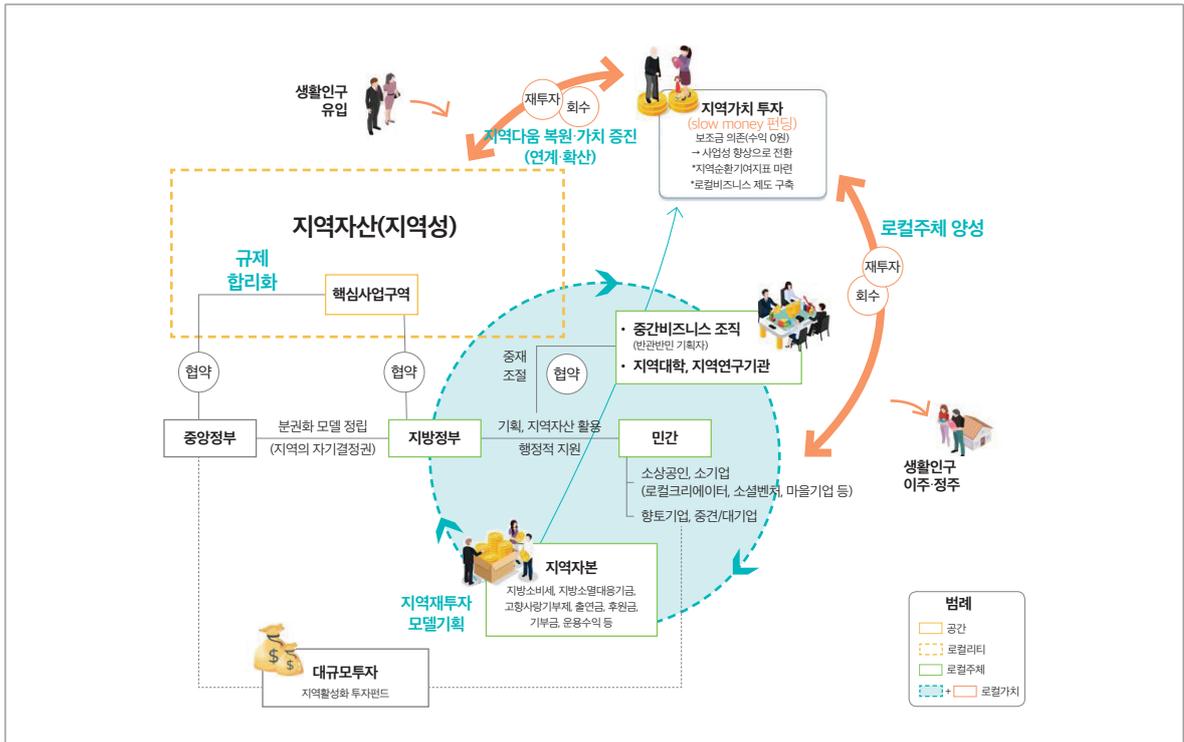
기본 방향

- ① 로컬이란 공간에서 로컬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간대상과 주체의 일치성 추구
- ② 지역다움, 지역 복원을 위한 지역자산의 발굴과 활용 촉진
- ③ 정책 투입에 대한 단계별, 주체별, 로컬리즘 구성요소별 구조화된 추진방안 마련

로컬리즘 구현을 위한 전략

- 로컬리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로컬주체와 로컬자본
 - 로컬리즘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으로 이는 생활인구의 유입과 정착, 그리고 생활인구의 지역내재화(지역동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
- 현재 지방시대 9대 정책 중 하나로 제시된 로컬리즘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을 결합한 정책사업의 명칭 정도로 사용되고 있어, 본고에서 제시하는 로컬리즘의 의미를 토대로 지역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 필요
 - 중앙정부는 로컬리즘의 정립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분권화 모델 구축이 시급하며, 지방정부는 중앙사무 위탁실행의 관행을 벗어나 스스로 기획-집행-평가할 수 있는 역량 구축과 제도 정비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도 발전을 위한 분권화 모델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

그림 5 로컬리즘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 작용



정책과제①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로컬리즘은 로컬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문화, 커뮤니티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지만, 정책대상으로는 로컬비즈니스 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 가능

- (문제점) 기술(Tech) 기반의 스타트업과 지역가치(Local) 기반의 스타트업은 발전경로가 상이하고, 지역가치 창업가는 일반 소상공인과 차이가 있으나, 현재 표준산업분류표에 기반한 실태조사로는 이들 규모조차도 파악 불가
 - 지역가치 창업가는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통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의무가 있어 일반 소상공인과 차이 발생(중소벤처기업부 2023)
- (적용방안) ① 소상공인 중에서도 지역가치 창업가를 구분하고, 이 안에서도 사회적기업, 농업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일반형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과 통계 구축 필요, ②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한 주체 양성, ③ 지역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중간비즈니스조직 육성

정책과제② 다양한 민간 참여를 위한 지역재투자 기획과 이의 작동을 위한 가치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에 재투자²⁾될 수 있도록 로컬금융생태계 조성

- (문제점) 지역재투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부재하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효과 측정방안 부재
-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민간의 자생적 혁신역량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로컬금융을 통한 사업자금 지원(저금리 대출 등)으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정책기획 필요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재투자에 대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조정 가능하도록 금융의 지역사회 사회공헌, 지역순환형 경제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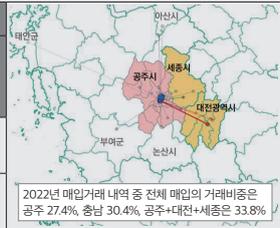
- 현재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하려는 대상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슬로우머니(slow money)’ 투자의 운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도 부재
 -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털(VC)이 운영하는 투자펀드는 대부분 기술스타트업에 대상으로 하며, 7~8년 이내에 높은 수익률로 회수되어야 하는 ‘패스트머니(fast money)’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로컬은 그 수혜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³⁾
- (적용방안) ① (가칭)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⁴⁾ 개발, ② 공공성과 영리성을 아우르는, 즉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의 형태로 결합하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역가치 재투자모델(로컬금융) 기획
-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가 유효한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 공주시 로컬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지역소비비중을 시범적으로 도출

[사례] 공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의 가칭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분석 시도

- 로컬리티 기반의 사업이 지역 내 경제적 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홍텍스의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지역 내 소비비중을 파악(홍텍스의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하는 설문조사보다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고, 간편하기 때문임).
- 거래구조를 분석한 결과, 공주시 내 지역소비액 비율은 전체의 약 27.4%를 차지하며, 공주와 대전, 세종으로 합산하면 33.8%에 해당. 지역 내 숙박공간 관련 매입거래 비중도 의미하며, 이는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에도 기여함을 의미.
- 무엇보다 지역 내 지출액 중 약 21%가 로컬크리에이터 간의 거래비중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연대·협업이 수치로 확인.

공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주식회사의 경제적 선순환 관련

구분	공간적 범위(공주시 기준)		공간적 범위(공주, 대전, 세종 기준)	
	공주시 내 전체 지출비중	공주시 내 로컬크리에이터 간 지출비중	공주, 대전, 세종의 지출비중	주력업종(식자재) 관련 공주, 대전, 세종의 지출비중
지역 내 소비비중(%)	27.4	21.1 (공주시 내 지출액 중)	33.8	44.5
지역 내 고용	○○○○주식회사 종사자 중 지역 거주자: 전체 종사자의 75% 2022년 지출된 인건비 중 지역 거주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85.3%			



- (시사점) 지역순환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할 때, 지역외부로 유출되는 거래를 최소화하고 지역 내 관련 업종과의 연결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공급망 확인 가능.
- 또한, 로컬비즈니스 중간조직 육성 등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업이나 지역에 투자 시, 가칭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가 유효한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정책과제③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지역현안에 대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획 및 활동할 수 있는 여건 구축

- (문제점) 민간참여 분야를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참여 활성화에는 한계
 - 최근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존립목적은 영리 추구임
 - 민간의 창의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컬소비체계 구축 등 지역순환체계 기여를 전제로, 지역현안을 민간이 기획하고 영리화가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
- (적용방안) 지역경제 순환체계 기여와 평가를 전제로 한 ‘로컬리즘 기반 민관협력’에 대한 다양한 유형(예: 사회공헌형(비영리), 로컬소비기여형(영리) 등) 발굴과 이에 대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협약을 통해 협업

3) 로컬 기반의 스타트업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비해 투자주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편(투자와 회수 모두 장기간 소요).

4)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지역사회에서 지출된 금액의 자본순환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LM3(LM3: Local Money Flow Multiplier 3) 측정 모델을 개발(Mitchell and Lemon 2019)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음.

정책과제④(중앙) '로컬리움지원단/로컬리움특별위원회', (지방) 로컬리움지원센터로 통합

민간의 다양한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기관의 기능 포괄

- (문제점) 특정 부서(과) 중심으로는 기획역량이나 다양한 민간의 요구사항을 대응하기에 한계
- (적용방안) ① 전 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로컬리움지원단/로컬리움특별위원회'를 구성, ②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기관을 통합한 '로컬리움지원센터' 구성

정책과제⑤ 지역자원(건축자산, 환경자산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로컬리움은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문제점)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진행되는 로컬비즈니스는 지역 정체성이 배어 있는 오래된 건축물이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자원 활용과 관련된 규제가 많은 것이 현실
- (적용방안) 규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현대의 기술력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과정 필요
 - 건축, 자연환경 등 로컬자원 활용에 대해 안전성과 필요성 등을 검증하는 기준(예: 위원회 심의통과, 안전진단 평가 등) 설정 후, 지역파급 효과가 높은 자원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량을 부여하는 방법 등도 고려 가능
 - 또한 이러한 자원을 임시로 활용해 보거나, 지역사회에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례사업자를 지정하는 방법도 모색이 필요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2022. 부산광역시조례 제6733호(8월 5일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2023. 2023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팀 모집공고.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ldx=310&bcldx=1039115> (2024년 3월 13일 검색).
- 한국관광데이터랩. 2023. 외지인 인기관광지.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loc/getAreaDataForm.do#> (2023년 10월 4일 검색).
- 행정안전부. 2023.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일반 및 휴게음식점. <https://www.localdata.go.kr/> (2023년 8월 21일 검색).
- 행정안전부, 한국리노베링. 2022. 지역은 어떻게 브랜딩 되는가, 로컬브랜딩 사례로 본 지역의 미래. 제주: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 KoDATA 기업정보데이터베이스. <http://www.kodata.co.kr> (2023년 5월 4일 검색).
- Mitchell, A. and Lemon, M. 2019. Using the LM3 method to evaluate economic impacts of an on-line retailer of local food in an English market town. *Local economy* 34, no. 1: 51-67.

- 안소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shan@krihs.re.kr, 044-960-0187)
- 남기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kcnam@krihs.re.kr, 044-960-0244)
- 정우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wsjeong@krihs.re.kr, 044-960-0207)
- 유희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044-960-0553)
- 강민석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문연구원(mskang@krihs.re.kr, 044-960-0170)

※ 이 브리프는 "안소현, 남기찬, 정우성, 유희연, 강민석. 202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로컬리움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

